

참당암 1000일 지장기도 회향

4월 8일 회향법회… 새 1000일 기도 다시 시작

고창 선운사, 도솔암과 함께 지장기도성지인 참당암이 1000일간에 걸친 지장기도를 회향하고 새로운 1000기도를 입재했다.

참당암은 4월 8일 경내에서 선운사 원로 재곤 스님, 법여 스님, 재연 스님, 참당암 선원장 법만 스님,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 초기불교승가대학원장 환성 스님, 불교연수원장 재안 스님, 강천사 주지 종고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전국에서 모인 불자 500여 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1000일 지장기도 회향 법회와 참회정진 1000일 기도 입재식을 봉행했다. 〈사진〉

이날 참당암 선원장 법만 스님은 회향법회 인사말을 통해 "참당암은 지장기도 도량이자 참회기도 도량이며 매안거 때마다 납자들이 방부를 들이는 참선수행도량"이라며 "여기 모인 대중은 참당암에서 참 스님들을 모시고, 부처님의 참 가르침을 제대로 알아 참 행복을 체험하는 참 불자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선운산에는 참당암의 인장지장보살, 도솔암의 천장지장보살, 선운사 지장보궁의 지지지장 보살님이 상주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삼장지장기도 도량"이라고 밝히며 "선운사 주지소임을 마치고 참당암으로 돌아와 대중과 함께 진행한 1000일 기도가 여법하게 회향할 수 있게 돼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지장기도정진에 동참한 주승희 불자는 "기도하는 순간순간 마음을 비우고 집중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새로운 1000일 기도를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참당암 1000일 지장기도는 삼독을 없애고 과거 모든 죄업이 소멸되기를 발원하며 지난 2015년 7월 5일 시작됐다. 또 100일마다 선망영가들을 위한 천도재를 봉행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금산사 문화재활용사업 'START'

금구중학교 대상 올해 첫 프로그램 시행



금산사 전통산사문화재활용 프로그램이 시작됐다.

김제 금산사(주지 성우)와 김제 금구중학교(교장 김판용)는 4월 11일 지역 청소년들이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재 역사를 배우는 전통산사 문화재활용 프로그램 '마음쉬는 수요일'을 실시했다. 〈사진〉

금구중학교 전교생 83명과 교사 등 100여 명이 동참한 행사는 금산사 소개, 금산사 문화유산 바로알기, 전북불교회관 세심다회의 다식만들기 체험, 보물 솟을 책 만들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문화재청과 전라북도, 김제시 지원사업으로 전통산사에 깃든 역사문화를 향유하고, 시대정신에 맞게 재해석된 가치를 전달하고자 기획된 금산사 문화재활용사업은 4월 11일부터 11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이어진다. 특히 미륵전 설화를 배경으로 젊은 소리꾼들이 모여 현대적인 언어로 새롭게 구성한 '창작 판소리극'이 프로그램에 추가됐다.

금산사 주지 성우 스님은 "국보62호인 미륵전이 담고 있는 유식사상을 기반으로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오직 알 뿐이라는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하며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보살의 계율'로 불제자임을 다진다

통도사 · 범어사 · 쌍계사, 보살계 수계산림 잇달아

통도사, 수계자 격려방편 마련
범어사, 불자 2000여 명 동참
쌍계사, 보물 지정 괘불도 공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보살계는 불도를 실천하는 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기본 계율이다. 부처를 이루겠다는 불도를 서원하며 청정계를 지킬 것을 다짐하는 보살계 수계산림법회가 영남지역서 일제히 열린다.

영축총림 통도사는 4월 20~22일 설법전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개최한다. 입재는 오전 9시 30분 입재불공을 시작으로 10시 30분에 입재식이 진행된다. 3일에 걸쳐 열리는 통도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마지막 날 계첩 배부와 장학금 수여 그리고 수계식으로 회향된다.

통도사는 자장율사가 금강계단이라는 수계 단을 만들어 창건한 지계 근본 도량이다.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가 보살계 수계를 열어 온 이후 매년 음력 3월에 꾸준히 수계산림법석을 열고 있다. 그 전통을 자랑하듯 매년 보살계 수계산림법회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든다. 보살계 수계자를 격려하기 위해 통도사는 10회 수계자들에게 기념 매달, 15회와 20회 수계자에게는 금색가사, 25회 · 30회 · 35회 수계자들에게는 성만패와 금색가사를 증정하고 있다.

이번 보살계 수계산림에는 전계대화상에 율주 혜남 스님, 갈마아사리에 지안 스님, 교수아사리에 수진 스님이 맡는다. 스님들은 3일 동안 〈범망경〉에 근거해 10중 48경계를 설할 예정이다.

통도사는 "보살계를 받는다는 것은 업력에 가려서 알지 못했던 자신의 진면목을 깨닫고, 출가와 재가에 관계없이 불성의 자리에서 '수계공동체'가 된다는 뜻"이라며 "금강불변한 계율의 몸으로 궁극에는 부처를 이루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길 바란다"고 관심을 당부했다. (055)382-7182

금정총림 범어사는 4월 29~30일 범어사 금강계단 보제루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불도 부산을 대표하는 보살계 법석으로 매년 부산불자 2천여 명이 찾아 계를 받고 있다.

범어사 보살계 수계산림은 1904년 성월 스님이 범어사 금강계단을 설치하고 보살계 산림을 일으킨 이래 매년 지속적으로 봉행되고 있으며 올해 118회를 맞는다.

전계대화상은 경선 스님, 갈마아사리는 정한 스님, 교수아사리는 영명 스님이 각각 맡는다. 첫날인 29일 오전 10시 보제루에서 입재식을 열고 예식을 진행, 이튿날 오전 10시 수계식을 끝으로 회향한다. 접수는 범어사 원주실 및 범어사 말사 혹은 암자로 하면 된다.

범어사는 "계를 지키는 사람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빛을 만난 것과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음과 같으며, 병든 이가 완쾌하는 것과 같다"며 "무술년 좋은 시절인연으로 보살계 산림법회를 봉행한다.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성불의 인연 맺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051)508-3636

쌍계총림 쌍계사는 4월 20~22일 금강계단(팔영루)과 대웅전 등에서 보살계 수계산림을 봉행한다.

쌍계사 수계산림은 20일 오전 10시 보살계 입재식이 진행되며 입재법문은 오후 2시에 열린다. 21일에는 보살계 말사 수계식 및 육조봉찬회가 개최된다. 22일에는 장경 정대불사를 진행한다. 이날 쌍계사는 보물 제1695호로 지정된 괘불도를 일반인에게 공개한다. 쌍계사는 1년 중 보살계 회향일인 마지막 날에만 쌍계사 괘불도를 공개하고 있다.

쌍계사는 1,200여 년 전 진감국사가 창건한 이래 계맥의 중흥조인 대은 · 금담율사가 전통적인 계법을 전하던 전법 도량이다.

이 사찰은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2018년도 정기 보살계 대법회를 겸해 대장경 정대불사, 육조봉찬회 총회를 연다. 쌍계사는 보살계 수계산림 증명법사로 고산 스님, 전계대화상 성주 스님, 갈마아사리 법융 스님, 교수아사리 덕민 스님이 맡는다. (055)883-1901

佛音 하모니로 밝힌 봉축燈

부산 영도구불교 연합회 합창제로 봉축 의미 다져



내빈과 참가합창단들이 올해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지혜와 자비로, 세상을 아름답게'를 함께 외치는 모습.

부산 영도구 불자들이 부처님을 찬탄하는 불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축하하고 봉축등을 밝혔다.

영도구불교연합회(회장 호법)는 4월 7일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불기2562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영도구 불교합창제'를 개최했다.

영도구불교합창제는 화합의 화음으로 '부처님오신날'을 기념하고 마음을 모아 봉축을 기뻐하는 자리로 처음 기획됐다.

합창제는 한마음 부산선법합창단이 먼저 무대에 올랐으며, 미룡사 바라밀합창단과 대원사 대원선재합창단이 차례로 올라 찬불가로 부처님을 찬탄했다. 이어 자유곡 공연과 BTN불교TV 남성중창단 게스트가 무대를 꾸며 큰 박수를 받았다. 마지막 회향의 무대에서는 승 · 재가 내빈이 차례로 연등을 들고 무대로 올라 헌등했다. 스님들이 먼저 부처님오신날 표어인 '지혜와 자비로'를 먼저 선창하자 대중이 '세상을 아름답게'를 함께 힘차게 외치며 무대를 마무리했다. 무대 가운데는 영도구불교연합회 스님들과 내빈들이 작성한 소원등이 장식했다.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은 "합창단들이 부처님오신날을 봉축하고 '불교합창제'를 함께 한 것은, 화합을 보여주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합창단의 모습을 보여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축하했다.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은 "여러분들의 싱그러운 음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더욱 환희로운 봄날이 다가온 것 같다"며 "합창을 통해 부처님께 더욱 다가가는 기회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합창제에는 부산불교연합회장 경선 스님, 영도구불교연합회장 호법 스님, 미룡사 회주 정각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혜도 스님, 대원사 주지 담화림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하성미 기자**

부산 불자 어머니들 "행복한 청소년 되길"

부산여성불자회, 장학금 전달

부산 불자 어머니들의 모임, 부산여성불자회가 청소년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행복한 청소년이 되길 기원했다.

부산여성불자회(회장 왕선자)는 4월 11일 부산불교연합회 전법관에서 장학금 전달식 및 제1회 부산불교전법대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부산여성불자회 총재 혜총 스님과 불교중흥실천협의회 의장 안국 스님, 백명숙 (사)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장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동참했다. 부산여성불자회는 (사)부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 학생 가운데 성적이 우수하고 불교활동에 앞장서는 청소년 20명을 선정, 각 30만원씩 총 600만원을 전달했다. 이어 현익채 前금정중 교장에게 부산불교전법대상을 수여했다.

왕선자 회장은 "회원들이 십시일반 모아 전달하는 장학금이다. 학생들이 불교를 더욱 깊이 알고 실천하며 행복하길 기원한다"며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전법활동을 펼쳐온 분을 선정해 상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인사했다. **하성미 기자**

악령, 귀신 잡는 스님이 있어 화제

憑依(빙의)와 귀신병(鬼神病)

은 자신의 생각 의지 마음과 상관없이 악귀에 조종당하여 자신과 가정은 예기치 못한 행동으로 끔직한 사건으로 비화되거나 또는 집안이 망신과 수치로 황폐화되고 사회적으로는 각종 사건사고에 연관되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본인 또는 가족 중에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으면 빙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으며 청정 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가정에 사랑과 건강함과 평화가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빙의와 귀신병의 주요 증상

* 혼자 중얼거리고 방에서 누구하고 대화 하듯이 씨부렁거린다. * 환청이 들리고 신경이 예민하여 고함을 지르고 발작을 일으킨다. * 공황장애와 과대망상 우울증으로 자살 하고픈 마음이 자주 생긴다. *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깨가 한 짐이 되어 무겁고 양쪽 팔과 다리와 허리가 찢어질 듯이 아프다. *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하는데 항상 머리가 무겁고 아픈 두통이 계속 되고 몸 전체가 몸살 난 것처럼 고통스럽다. * 평상시는 순하고 순한데 술만 마시면 난폭해지고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이상한 사람으로 바뀐다. * 무엇에 홀린 듯이 술을 연속하여 밤새도록 마시거나 또는 줄 담배를 피운다. * 몸속에 귀신이 드나드는 느낌이 들고 이유 없이 몸이 아프거나 잘 나가든 집안이 갑자기 몰락한다. * 술은 마시면 말과 방언이 튀어 나오고 본인이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평상시와 다른 폭력적인 사람으로 변한다. * 어느 날 갑자기 과도한 비만이 되어 이상한 몸으로 변했다. * 돌발적인 행동과 발작을 일으키고 자꾸 누군가 자신을 해치려고 한다거나 귀에다 대고 속삭이는 경우. *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도리어 더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 신의 제자가 되기 위해 신 내림굿을 하였는데 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원상복귀를 원하고 있는 사람. * 돌아가신 조상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꿈속에 자주 나타난다. * 계속하여 악몽을 꾸거나 헛것이 보이고 귀신이 보인다. * 귀신하고 사랑을 한다. * 입산수도 하다 오히려 잡귀에 씌어 고통당하고 있다. * 신병과 귀신병으로 고생하고 있다. * 집안에 연속하여 대형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가족 구성원이 아무 이유 없이 줄초상을 당한다. * 종교계통의 일을 하는데 빙의 되어 있다. (예를 들면 자신이 부처이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 결혼 적령기가 훨씬 지났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다. * 큰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나간 것처럼 행동한다. * 가족 중에 정상적이지 못하고 누가 봐도 이상한 행동을 한다. * 불교 기독교 등 종교와 상관없으며 귀신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해결되며 국내와 해외에 거주하여도 본인이 직접 오지 않고 가족이 와도 무방합니다. **위와 같은 증상이 있으면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청정수월도량 자비사와 인연이 되어 잡귀 마장 사탄 중엄신 조상신등 악마 잡귀의 무거운 짐을 벗어 가정의 건강함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가정으로 새롭게 태어나길 바랍니다.**

어떠한 악령 귀신도 단번에 제도하여
고통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며
심신의 안녕과 평화를 찾게 합니다.

다른데서 몇 번이나 했는데
안 되더라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심대한 부처님의 가피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 대한불교 자비사 상담전화 010-8600-7409 (서울 강남구 대치동 2호선 선릉역 지하철 1번 출구)